



좌완 퍼즐 맞추기 올 시즌 성적 좌우

심동섭 '마무리 카드' 성공 위해
임기준·유창식 등 필승조 테스트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리그에서 '좌완 퍼즐'을 맞춘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는 지난 13일 주니치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6시즌 구상에 들어갔다. 에이스 윤석민의 선발 복귀 속 헥터·지크 두 외국인 선수의 가세로 짝 채워진 선발진을 빼고는 여기서 가장 손보고 더해야 할 곳 투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자리이자 올 시즌의 결과를 좌우할 주요 자리는 '좌완'이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을 빼고 스프링캠프에서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원손은 정용운 심동섭 임기준 유창식 이준영 김명찬 등 6명이다. 올 시즌 불펜 구상은 지난해와 다르다. 마무리로 뒤편을 책임졌던 윤석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가장 뒤에서부터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한다. 몸을 바꾼 한승혁이 첫 실전에서 안정된 제구로 153km를 찍으며 어필을 했지만, 일단 가장 유력한 마무리 후보는 심동섭이다. 배짱있는 투구와 위력적인 구위, 필승조로 활약해온 경험 등을 고려하면 심동섭이 적임자다. 그러나 심동섭이 제일 뒤로 배치되는 경우 고민이 하나 생긴다. 좌완이 귀한 KIA에서 필승조로 확실하게 왼쪽을 책임져 줄 투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시즌에도 윤석민을 불러내기에 앞서 자리를 지킨 좌완은 심동섭이 거의 유일했다. 그나마 좌완 콤비로 호흡을 맞췄던 임준섭의 트레이드 이후 선발 요원으로 출발했던 임기준과 팀을 옮긴 유창식이 기대와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피장을 하면서 심동섭이 외롭게 마운드를 끌어갔다. '심동섭 마무리 카드'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좌완 불펜진 특히 필승조의 역할을 담당해 줄 투수가 필요하다. 좌완 퍼즐을 맞추기 위한 테스트는 시작됐다. 주니치와의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3명의 좌완이 나란히 출격했다. 이준영이 선발로 나서 2이닝을 책임졌고,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허리 통증으로 중도 귀국했던 정용운이 1이닝 모습을 드러냈다. 유창식도 정용운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 2이닝을 던지며 몸을 풀었다. 결과가 좋지는 못했다. 특히 유창식은 한 이닝에 4개의 폭투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아쿠르트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임기준과 심동섭이 출격해 스프링 캠프 첫 실전을 소화했다. 잃어버린 스피드를 찾아야 하는 임기준의 첫 등판 최고 스피드는 137km, 9회를 맡은 심동섭은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내야 땅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김명찬이 첫 실전을 앞둔 가운데 좌완 6인방은 남은 10번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불펜 구상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맞춰야 하는 좌완 퍼즐, KIA의 깊은 고민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창식



임기준



김명찬



이준영



정용운

미리보는 프로야구 '오키나와 리그'

KIA·삼성·SK 등 6개 구단 평가전·한일전도

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일본 오키나와에 모인다. 6개 팀은 오키나와에서 평가전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키우고 상대 전력도 분석한다. 2016시즌 개막을 기다리며 긴 겨울을 버티는 프로야구팬에게는 2016시즌 KBO리그 판도를 미리 살필 기회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는 이미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16일 LG 트윈스가, 18일 넥센 히어로즈가 오키나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오키나와 리그'가 열린다.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히로시마 도요카프, 주니치 드래건스,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닛폰햄 파이터스도 오키나와에 이미 캠프를 차렸거나 차릴

예정이라 '작은 한일전'도 펼쳐진다. 오키나와 리그는 15일 삼성과 SK의 맞대결로 시작했다. 이 경기를 포함해 3월 2일까지 총 38차례 한국 팀 맞대결 혹은 한·일전이 열린다. 이 중 18경기가 한국 팀 맞대결이다. 사령탑 대부분이 체력 위주로 훈련한 1차 스프링캠프에는 "만족한다"고 했지만 "아직 팀이 완성되지 않았다. 실전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오키나와 리그는 몸을 풀고 얹으며 퍼즐을 완성하는 단계다. 모든 구단이 아직 선발진과 주전 라인업을 확정하지 않았다. 곳곳에 불음표가 달렸다. 5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삼성 사령탑 류중일 감독마저 "선발진과 불펜, 내야진에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엔 오키나와 캠프에서 새로 뽑은 외국인 3명의 KBO리그 적응력을 키운다. 야마이코 나바로와 임창용이 떠난 2루와 마무리 자리 주인도 오키나와에서 결정한다. 넥센 히어로즈는 강정호에 이어 박병호, 유한준이 떠난 중심타선이 비었다. 1선발 앤디 밴헤켄과 마무리 손승락의 이적으로 생긴 공백도 메워야 한다. SK와 한화는 4, 5선발 주인 찾기가 관건이다. 세대교체와 명가 부활을 동시에 노리는 KIA와 LG는 지난해 가능성이만 확인한 젊은 선수의 도약을 기대한다. 지난해 '오키나와 리그 모범생'으로 불린 구자욱(삼성)은 정규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신인왕까지 거머쥐었다. 오키나와에서 많은 선수가 '제2의 구자욱'을 꿈꾼다.

연합뉴스

女골퍼 'TOP 10' 6명 한국인

1위 리디아 고도 한국계...2위 박인비·5위 김세영
김효주 6위·유소연 7위·장하나 9위·전인지 10위

김효주(21·롯데)가 여자골프 세계랭킹을 6위로 한 계단 끌어올렸다. 김효주는 1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5.29점을 획득,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다. 유소연(5.28점)은 0.01점 차로 6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5위 김세영(23·미래에셋)에

이후 김효주가 세 번째, 유소연은 네 번째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나라별로 2명씩 출전할 수 있다. 세계랭킹 15위 안에 4명 이상이 들어 있는 나라는 4명까지 나설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랭킹 15위 안에 7명이 이름을 올려 4명이 올림픽 출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코츠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승을 올린 장하나(24·비씨카드)는 9위, 올해 본격적으로 LPGA 투어에 데뷔한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10위다. 지난해 11위이던 양희영(26·PNS)은 브룩 헨더슨(캐나다)에게 밀려 12위로 내려갔다. LPGA 투어가 지난주 대회를 치르지 않은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열린 유럽여자골프 투어(LET) ISPS 한다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새해 첫 승을 거둔 리디아 고(19)는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리디아 고는 랭킹 포인트를 지난주 11.20점에서 11.31점으로 올리며 2위 박인비(9.90점)와 격차를 1.09점에서 1.41점으로 벌렸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렉시 톱슨(미국)이 3, 4위로 이름을 뒤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매길로이-파울러 6월 7일 샷대결

세계남자골프 빅4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리키 파울러(미국)가 오는 6월 메이저대회 US오픈을 앞두고 샷대결을 벌인다. AP통신은 미국 금융업체인 쿨린 론스가 세계랭킹 3위 매길로이와 4위 파울러의 빅매치를 성사시켰다고 16일 보도했다. 대결 시기는 US오픈이 열리기 1주 전인 6월 7일(현지시간)이며 장소는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골프클럽이다. 쿨린 론스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내세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쿨린 론스 내셔널 대회를 개최하는 등 골

프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회사다. 두 선수의 구체적인 대결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팀 로리'와 '팀 리키'로 나눠 샷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매길로이와 파울러는 1인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지만 코스를 떠나서는 절친한 사이다. 두 선수 모두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작년에는 매길로이가 주최한 아일랜드 오픈에 파울러가 출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삼성생명 유남규 감독 영입

1988년 서울 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감독(48)이 삼성생명에 새 등지를 뒀다. 삼성생명은 16일 여자탁구단 새 감독으로 유남규(48) 전 에쓰오일 남자탁구단 감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유 감독은 농심삼다수와 에쓰오일 등에서 수년간 감독직을 수행하며, 국내 탁구계 최고의 기술과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 감독은 2년간 이끌어왔던 에쓰오일 탁구단이 다음 달 해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계약이 끝나 이번엔 삼성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연합뉴스